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산부인과 노주원 교수, 2015 대한암학회에서 노바티스 Merit Award 수상

산부인과 노주원 교수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1회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암 컨퍼런스(The 41st Annual Meeting of Korean Cancer Association with International Cancer Conference)에서 노바티스 Merit Award를 수상했다.

이날 노주원 교수는 'Biological significance of yes-associated protein (YAP) in endometrial cancer'로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새롭게 확인된 YAP 유전자의 비정상적 발현이 자궁내막암 발생에 관여하며, siRNA 함입 키노산 나노입자를 이용한 YAP 유전자 발현억제가 자궁내막암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편, 노 교수는 현재 부인암의 표적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표적 유전자를 발굴하고 해당 유전자의 발현이 부인암 발생과 예후 등에 관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실험연구와 전임상동물실험을 통하여 증명하는 등 앞으로 부인암 표적치료제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02 지도법사 증취 스님, 병원버스 구입비 기부

지도법사 증취 스님은 23일 동국대학교병원의 노후된 버스 교체에 써 달라며 버스구입비 전액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전년도 큰법당 불사에 사용하고 남은 돈과 연우책방 수익금 등을 모아 좋은 일에 회향을 하게 되었다. 지도법사 증취 스님은 "10년이 경과한 노후된 버스를 타고 사찰순례와 의료봉사 등 대외활동을 하는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덕 큰스님의 많은 도움을 받아 기부를 하게 되었다. 병원버스로 대한민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찰에서 내면을 성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히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동국대학교병원 버스는 출·퇴근 외에도 템플스테이, 의료봉사 등 다양하게 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내외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3 광월희 간호부장,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에서 강연

광월희 간호부장은 19일부터 23일까지 올림픽 체조경기장과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에서 강연을 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장과 병원간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광월희 간호부장은 21일 코엑스에서 '한국의 의료보건 체계(The health system of Korea)'의 주제로 영어강연을 하여 각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세계간호사들에게 한국보건 의료체계의 우수성을 잘 알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대회는 간호교육과 연구, 실무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육하는 학술대회로 진행되었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도 약 60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시민, 글로벌 간호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대한민국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 마거릿 찬(Margaret Chan)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다.



04 메르스 예방 위한 의료지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 메르스 예방을 위한 의료지원을 시행했다.

이날 의료지원은 중앙종회 임시회가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중앙종회위원 80여 명과 기자 등 약 130여 명을 대상으로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체온을 측정하고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수칙 등을 안내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메르스로 인한 전 국민 불안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의료 최전선에서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05 2015년 제2차 감성스쿨 '민화부채 만들기' 개최

간호부는 23일 2015년 제2차 감성스쿨 '민화부채 만들기'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 진행한 감성스쿨은 오미정 외래간호팀장이 재직간호사 30명과 함께 민화부채를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 부채에 모란꽃 무늬를 채우며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간호사들은 "부채에 민화를 그리면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행복한 느낌이 들었으며, 올해는 민화부채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간호부 행사 담당자는 "감성스쿨이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해져 간호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모든 간호사들이 성장하는 감성스쿨로 키워 가겠다."고 전했다.



주인공 30호

의과학연구소

임종수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의료원으로 부서 이동을 하였지만 몇년 전 만해도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가운을 입고 일하는 모습이 더 잘 어울리는 분이었습니다. 동네 아저씨 같은 털털한 이미지에 늘 웃는 인상 덕분에 병원의 웬만한 직원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병원의 마당발이시죠. 제가 술을 별로 즐기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연락해서 술 한잔 하자고 말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구요. 소문에 의하면 후배들을 위해 고양시 구석구석 맛집을 찾아다니며 술을 사주신다는 훈훈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보다도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공과사가 분명하고 똑 소리 나는 업무스타일입니다. 업무에 있어 서만큼은 철두철미하고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의과학연구소에서 소장님과 교수님들을 잘 보필하고, 직원들 뿐만아니라 연구원들까지 다양한 직종을 화합으로 푹푹 뭉쳐 최상의 팀워크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타 직원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글 보고 맛집에서 술 사달라고 전화 오는 직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부담되지않으면 연락주세요~~~

시설관리팀 신동환